

2021년  
고3 3모

2021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선율 환생, 설홍전 변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신 · 수능형 문제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돈을 시주받아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쫓겨 염라대왕에게 갔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늘그막에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네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했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의 논 한 이랑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 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논을 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 아래에 숨겨 두고, 급게 짠 베를 이불 사이에 감추어 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등(佛燈)을 켜 주시고, 그 베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말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 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 주었다.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고(僧司書庫) 안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 일연, '선율 환생'

(나)

사자 홍사(紅絲)를 내어 홍을 결박하여 이끌며 하는 말이,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성화같이 재촉하며 철퇴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며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설홍이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빌되, ㉢ 왕명을 어이하리오. 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 산하를 바라보며 낙루 탄식 왈,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볼꼬.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고. 내 소식이 망연하다.”

㉣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狂波)로다. 다리는 죽장같이 붓고,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치 못하더라. 그러구러 염라국을 돌아드니 철성(鐵城)을 둘러는데, 문 지키는 나졸들이 장창 대검을 들고 흑좌흑립(或座或立)하였더라. 그러구러 들어가니, 한 사자 이십 전 여아를 이끌고 오며 쇠뿔치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거늘, 홍이 대경하여 사자에게 문 왈,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하나이까.”

그 사자 답 왈,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 공녀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저 하며 국내가 요란한지라, 가히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인고로 잡아 오나이다.”

(중략)

그러구러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그 문에 이르러 문틈으로 살펴보니, 염라대왕이 통천관을 쓰고 몸에 곤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홍단령 입은 선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 소리 높이 나며 황건 쓴 나졸들이 왕방울을 둘러차고 맹호같이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가거늘, 홍이 혼백이 상천(上天)하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었드렸더니, 전상으로서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설홍아, 들으라. 너는 삼태 선관으로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 지어 화답한 죄로 지하에 내리어 사십 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명국 금릉 땅 앵무동 설희문의 자식이 되려니와 부모를 조실하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하며, 그 선녀는 풍도(豐都)에 보내 십 년을 머무른 후에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녕의 여식이 되게 함이요,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이어니와 이는 무엇이뇨.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天桃)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상제 알으시고 봉황은 선 길 지함에 가두시고, 천도 말은 선관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니,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라. 내 문죄코져 너를 앞에 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뢰라. 일정 기망하면 네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 버리고, 세상의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 종실직고하라.”

호령을 높이 하니, 재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 내리니 대하에 황건으로 쓴 나졸이 장창 대검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 설홍을 잡아 내려 주살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설홍이 정신을 다시 차려 아뢰되,

“소자는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소

자 어찌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시는 천도를 앗아 먹사오리까. 어린 소견에 생각하오니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웁고, 잡초에 떨어져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가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걸 어이 죄라 하오리오.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 번 죽사와도 이밖에는 다시 아될 말씀 없사오니, 복걸 대왕은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어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왕이 설홍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네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연이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일후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하며 문밖에 내치니라. 설홍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짖더라.

- '설홍전'

[학평 변형 문제]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서술자의 개입이 빈번하게 나타나 작품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초현실적 인물을 사건에 개입시켜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독자들이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역순행적 서술을 통해 주요 사건의 원인보다 결과가 더 부각되도록 하고 있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학평 변형 문제]

2. (가)의 '선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다.
- ② 죄를 지은 여인의 방자한 말에 크게 놀랐다.
- ③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뒤에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 ④ 불경을 완성하지 못한 죄를 염라대왕에게 솔직히 고백하였다.
- ⑤ 여인의 도움으로 불경을 완성하게 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학평 변형 문제]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나타나고 있다.
- ② ㉡ :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기 힘들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 : 설홍이 저승으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설홍이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 : 설홍의 죄가 잘못 염라국에 전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평 변형 문제]

4.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염라대왕은 천명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설홍의 항변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 ② 염라대왕은 설홍이 이승에 나가면 고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③ 설홍은 저승사자를 따라 저승으로 가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 ④ 설홍은 염라대왕에게 봉황에게 자신이 직접 열매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다.
- ⑤ 설홍은 인간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운명을 지니고 왕년의 여식으로 태어났다.

[학평 변형 문제]

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삼국유사의 '선율 환생'은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을 구별하고 상벌을 받게 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소(話素)는 후대의 저승 체험담에서도 발견된다. 후대의 고소설인 '설홍전'에서는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고 저승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윤리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설홍전'은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하고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선율 환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① (가)에서 염라대왕이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은, 자신이 직접 불경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 ② (나)에서 저승사자가 이십 전 여아를 저승으로 잡아 온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헛된 욕망이 부질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③ (가)에서는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나)에서는 설홍이 이십 전 여아에 대해 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가)에서는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나)에서는 염라대왕이 설홍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인물이 저승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게 되는 원인이 된다.
- ⑤ (가)에서는 논 한 이랑을 훔친 죄에 연루된 까닭으로, (나)에서는 천도를 앓아 먹었다는 죄로 저승에 잡혀 온 인물이 있는 것은, 작은 잘못으로도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돈을 시주받아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쫓겨 염라대왕에게 갔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늘그막에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네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했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의 논 한 이랑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 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논을 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 아래에 숨겨 두고, 급게 짠 베를 이불 사이에 감추어 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등(佛燈)을 켜 주시고, 그 베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말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 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 주었다.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녀

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고(僧司書庫) 안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 일연, '선율 환생'

(나)

사자 홍사(紅絲)를 내어 홍을 결박하여 이끌며 하는 말이,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성화같이 재촉하며 철퇴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며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더라. 설홍이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빌되, 왕명을 어이하리오. 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 산하를 바라보며 낙루 탄식 왈,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볼꼬.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고. 내 소식이 망연하다.”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狂波)로다. 다리는 죽장같이 붓고,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치 못하더라. 그러구러 염라국을 돌아드니 철성(鐵城)을 돌렸는데, 문 지키는 나졸들이 장창대검을 들고 흑좌흑립(或座或立)하였더라. 그러구러 들어가니, 한 사자 이십 전 여아를 이끌고 오며 쇠뿔치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거늘, 홍이 대경하여 사자에게 문 왈,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하나이까.”

그 사자 답 왈,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 궁녀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저 하며 국내가 요란한지라, 가히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인고로 잡아 오나이다.”

(중략)

그러구러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그 문에 이르러 문틈으로 살펴보니, 염라대왕이 통천

관을 쓰고 몸에 곤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홍단령 입은 선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 소리 높이 나며 황건 쓴 나졸들이 왕방울을 둘러차고 맹호같이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가거늘, 홍이 혼백이 상천(上天)하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엎드렸더니, 전상으로서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설홍아, 들으라. 너는 삼태 선관으로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 지어 화답한 죄로 지하에 내리어 사십 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명국 금릉 땅 앵무동 설희문의 자식이 되려니와 부모를 조실하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하며, 그 선녀는 풍도(豐都)에 보내 십 년을 머무른 후에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녕의 여식이 되게 함이요,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이어니와 이는 무엇이뇨.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天桃)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상제 알으시고 봉황은 쉼 길 지함에 가두시고, 천도 말은 선관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니,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라. 내 문죄코져 너를 앞에 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뢰라. 일정 기망하면 네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 버리고, 세상의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 종실직고하라.”

호령을 높이 하니, 재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 내리니 대하에 황건으로 쓴 나졸이 장창 대검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 내려 주살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설홍이 정신을 다시 차려 아뢰되,

“소자는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시는 천도를 앗아 먹사오리까. 어린 소견에 생각하오니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웁고, 잡초에 떨어져 입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가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걸 어이 죄라 하오리오.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 번 죽사와도 이밖에는 다시 아뢴 말씀 없사오니, 복걸 대왕은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어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왕이 설홍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네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연이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일후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하며 문밖에 내치니라. 설홍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짖더라.

- '설홍전'

6.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에 해당한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이승과 저승이라는 공간이 나타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작품 속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지명과 함께 증거물이 나타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교훈적 성격이 나타나는 글이다.

7.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인물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해소되고 있다.
- ③ 등장인물의 행적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잦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특정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해당 행위의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8.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② 중재자를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③ 인물의 심리 변화를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비현실적인 공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해당 공간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소재의 다양한 의미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9.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망덕사의 선율은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불전을 만들려고 했다.
- ② 염라대왕은 선율의 이승에서의 행적을 인정하였다.
- ③ 여인은 선율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였다.
- ④ 선율이 완성한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고 안에 있다.
- ⑤ 선율은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다시 살아나왔다.

10.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설흥은 안남국 공녀로서 신하를 간통한 죄로 저승으로 끌려갔다.
- ② 염라대왕은 통천관을 쓰고 몸에 곤룡포를 입고 있었다.
- ③ 설흥은 염라대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④ 염라대왕은 설흥의 잘못을 매우 엄하게 꾸짖고 있다.
- ⑤ 설흥은 저승에서 벗어나 세상에 나왔지만 어디로 향할지를 몰랐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돈을 ㉠ 시주받아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쫓겨 염라대왕에게 갔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늘그막에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네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했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의 논 한 이랑을 몰래 훔친 죄에 ㉡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 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논을 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 아래에 숨겨 두고, 급게 짠 베를 이불 사이에 감추어 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등(佛燈)을 켜 주시고, 그 베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말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 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 주었다.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녀

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고(僧司書庫) 안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 일연, '선을 환생'

(나)

사자 홍사(紅絲)를 내어 홍을 걸박하여 이끌며 하는 말이,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성화같이 재촉하며 철퇴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며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설홍이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빌되, 왕명을 어이하리오. 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 산하를 바라보며 낙루 탄식 왈,

[A] “저 ㉠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볼꼬.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고. 내 소식이 망연하다.”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狂波)로다. 다리는 죽장같이 붓고,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치 못하더라. 그러구러 염라국을 돌아드니 철성(鐵城)을 들렀는데, 문 지키는 나졸들이 장창대검을 들고 흑좌흑립(或座或立)하였더라. 그러구러 들어가니, 한 사자 이십 전 여아를 이끌고 오며 쇠뿔치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거늘, 홍이 대경하여 사자에게 문 왈,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하나이까.”

그 사자 답 왈,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 공녀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저 하매 국내가 요란한지라, 가히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인고로 잡아 오나이다.”

(중략)

그러구러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그 문에 이르러 문틈으로 살펴보니, 염라대왕이 통천

관을 쓰고 몸에 곤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홍단령 입은 선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 소리 높이 나며 황건 쓴 나졸들이 왕방울을 둘러차고 맹호같이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가거늘, 홍이 혼백이 상천(上天)하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엎드렸더니, 전상으로서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설홍아, 들으라. 너는 삼태 선관으로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 지어 화답한 죄로 지하에 내리어 사십 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명국 금릉 땅 앵무동 설희문의 자식이 되려니와 부모를 조실하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하며, 그 선녀는 풍도(豐都)에 보내 십 년을 머무른 후에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녕의 여식이 되게 함이요,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이어니와 이는 무엇이뇨.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天桃)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상제 알으시고 봉황은 쉼 길 지함에 가두시고, 천도 맡은 선관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니,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라. 내 문죄코져 너를 앞에 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뢰라. 일정 기망하면 네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 버리고, 세상의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 종실직고하라.”

호령을 높이 하니, 재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 내리니 대하에 황건으로 쓴 나졸이 장창 대검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 내려 ㉡ 주살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설홍이 정신을 다시 차려 아뢰되,

“소자는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시는 천도를 앗아 먹사오리까. 어린 소견에 생각하오니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웁고, 잡초에 떨어져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가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걸 어이 죄라 하오리오.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 번 죽사와도 이밖에는 다시 아뢴 말씀 없사오니, 복걸 대왕은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어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왕이 설홍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  
 이되, 네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연이나 세  
 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  
 와 일후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하며 문밖에 내치니라. 설홍이 죄를 면하고 세  
 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  
 짓더라.  
 - ‘설홍전’

1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장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에 대해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감정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초현실적 인물을 사건에 개입시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대한 작중 인물들이 가진 다양한 관점들을 절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2. (나)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내 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들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녁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으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물헛마리신더  
 솔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정과정’

- ①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 ② 현실적 존재와 비현실적 존재 사이의 갈등이

- 침예하게 나타나고 이를 통해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인물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④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제시된 문제 상황이 해결되기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드러내고 절망적인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13.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승려에게 혹은 절에 돈이나 음식 따위를 보시하는 일.
  - ② ㉡ : 연관되거나 얽히게 되다.
  - ③ ㉢ : 사람이 죽은 다음 그 혼이 가서 산다는 세상.
  - ④ ㉣ : 사람 없는 산에 외로이 비치는 밝은 달.
  - ⑤ ㉤ : 죄를 지은 사람에게 최후 변론할 기회를 주다.

14.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염라대왕이 선율과 설홍을 이승으로 돌려보낸 이유.
  - ② 길가에서 본 여인과 이십 전 여아가 고통받는 이유.
  - ③ 선율이 무덤 속에서 벗어나기까지 걸린 시간.
  - ④ 망덕사의 승려 선율이 죽은 이유.
  - ⑤ 선율이 완성한 불경이 있는 곳.

15. 다음 작품 중에서 [A]에서 설홍이 불렀음직한 노래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흐노라.
  - ② 선인교(仙人橋) 나린 물이 자하동(紫霞洞) 에 흘러드러  
반천 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썸이로다

아희야 고국 흥망(故國興亡)을 물어 무슨 헝리오.  
 ③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다시 보자 한강수(漢江水) | 아  
 고국산천(故國山川)을 써느고자 헝라마는  
 시절(時節)이 하 수상(殊常)헝니 울동말동 헝여라  
 ④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 할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똥돈가  
 진실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⑤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헝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여내니  
 나 헝 간 돌 헝 간에 청풍(淸風) 헝 간 맛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서술형 문제**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돈을 시주받아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쫓겨 염라대왕에게 갔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늘그막에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네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했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의 논 한 이랑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 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논을 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 아래에 숨겨 두고, 곱게 짠 베를 이불 사이에 감추어 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등(佛燈)을 켜 주시고, 그 베를 팔아서 불

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말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 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 주었다.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고(僧司書庫) 안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 '선율 환생'

(나)

사자 홍사(紅絲)를 내어 홍을 결박하여 이끌며 하는 말이,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성화같이 재촉하며 철퇴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며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더라. 설홍이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빌되, 왕명을 어이하리오. 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 산하를 바라보며 낙루 탄식 왈,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볼꼬.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고. 내 소식이 망연하다.”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狂波)로다. 다리는 죽장같이 붓고,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치 못하더라. 그러구러 염라국을 돌아드니

철성(鐵城)을 돌렸는데, 문 지키는 나졸들이 장창 대검을 들고 흑좌흑립(或座或立)하였더라. 그러구러 들어가니, 한 사자 이십 전 여아를 이끌고 오며 쇠뿔치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거늘, 홍이 대경하여 사자에게 문 알,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하나이까.”

그 사자 답 알,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 공녀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저 하매 국내가 요란한지라, 가히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인고로 잡아 오나이다.”

(중략)

그러구러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니 극히 엄숙하더라. 그 문에 이르러 문틈으로 살펴보니, 염라대왕이 통천관을 쓰고 몸에 곤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홍단령 입은 선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 소리 높이 나며 황건 쓴 나졸들이 왕방울을 둘러차고 맹호같이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가거늘, 홍이 혼백이 상천(上天)하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었드렸더니, 전상으로서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설홍아, 들으라. 너는 삼태 선관으로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 지어 화답한 죄로 지하에 내리어 사십 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명국 금릉 땅 앵무동 설희문의 자식이 되려니와 부모를 조실하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하며, 그 선녀는 풍도(豐都)에 보내 십 년을 머무른 후에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녕의 여식이 되게 함이요,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이어니와 이는 무엇이뇨.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天桃)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상제 알으시고 봉황은 쉼 길 지함에 가두시고, 천도 말은 선관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니,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라. 내 문죄코져 너를 앞에 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뢰라. 일정 기망하면 네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 버리고, 세상의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 종실직고하라.”

호령을 높이 하니, 재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 내리니 대하에 황건으로 쓴 나졸이 장창 대검을 들

고 일시에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 내려 주살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설홍이 정신을 다시 차려 아뢰되,

“소자는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시는 천도를 앗아 먹사오리까. 어린 소견에 생각하오니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웁고, 잡초에 떨어져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가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걸 어이 죄라 하오리오.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 번 죽사와도 이밖에는 다시 아뢰 말씀 없사오니, 복걸 대왕은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어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왕이 설홍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네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연이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일후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하며 문밖에 내치니라. 설홍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짖더라.

- '설홍전'

16. (가)에서 선율이 이승에서 이루려고 했던 과업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선율은 이승에서 ~'라는 형태로 작성할 것.

17. (가)에서 여인이 선율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이유를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여인은 ~에서 ~ 위해 부탁을 하였다.'라는 형태로 작성할 것.

18. (나)에서 이십 전 여아가 저지른 잘못을 한 문장으로 작성하시오.

19. (나)에서 설홍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쫓겨난 이유를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때문이다.'라는 형태로 작성할 것.

20.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두 작품에서는 모두 ~이 나타난다.'
- 빈칸에는 주인공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할 것.

## 정답 및 해설

### 내신 · 수능형 문제

1. <답> ⑤

(가)는 망덕사, 저승, 무덤, 여인의 집 등의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가)는 이들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저승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설홍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염라대왕이 ~분주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답> ①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 주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답> ①

㉠은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지나 선율의 육신이 무덤에 있게 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4. <답> ②

'연이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일후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답> ③

(가)에서 선율은 이승으로 돌아오기 전 저승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 이와 같이 대화하는 장면을 제시한 것은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한다. 그리고 (나)에서 설홍은 염라국, 즉 저승에 들어가 이십 전 여아에 대해 저승사자와 대화를 나눈다. 이 장면도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해 준다.

6. <답> ③

(나)는 작품 속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시점이 아닌 작품 밖 서술자가 전달하는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7. <답> ③

이 글에서 주인공인 '선율'은 이승에서 불경을 완성하지 못하고 저승으로 향했다. 그리고 저승의 염라대왕은 불경을 만들었던 선율의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 마땅하다.'라며 환생을 시켰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행적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8. <답> ①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설홍이 저승에 다다른 과정에서와 도착한 저승의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9. <답> ①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돈을 시주받아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만들려 하다가'라고 했으므로 자신의 재력으로 불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10. <답> ①

안남국 공녀로서 신하를 간통한 죄를 지은 것은 설홍이 아니라 이십 전 여자아이다.

11. <답> ④

두 작품은 모두 초현실적 인물인 염라대왕을 사건에 개입시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12. <답> ③

(나)에서는 설홍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인물인 염라대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대상인 '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3. <답> ⑤

㉡ : 죄를 물어 죽이다.

14. <답> ④

망덕사의 승려 선율이 죽은 이유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15. <답> ③

3번 작품은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끝까지 척화항전(斥和抗戰)을 주장하던 작자가 패전 후 청나라로 잡혀가면서 부른 노래로, 비분강개한 심정이 응어리져서 나타난 작품이다. 그리고 작품에서 조국으로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겠다며 한스러움을 드러낸 것이므로 윗글에서 저승으로 잡혀가는 설홍이 불렀음직한 노래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서술형 문제

16. <답> 선율은 이승에서 불전(불경)을 완성하려고 하였다.

17. <답> 여인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탁을 하였다.

18. <답>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자 하였다.

19. <답> 선녀와 더불어 글 지어 화답하였기 때문이다.

20. <답> 두 작품에서는 모두 저승에서의 경험이 나타난다.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0325-4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3.26  
가격 1500원

